

8장 비물질적 노동과 공통적인 것의 생산II

(1교시)

학습목표: 이 강의에서는 비물질적인 것이 어떤 형태들로 드러나고, 그것들이 갖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.

▲ ‘몸과 정신’의 관계

: 인간에게 있어 육체만이 객관적 실체이고, 정신은 환상이나 관념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.

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나 정신도 결국 물질적인 것과 함께 진행된다.

예>컴퓨터 : 현 시대의 가장 생산적이고 고도화 된 작업도구.

CPU, 반도체 등 물질의 규모가 작아질 순 있지만, 컴퓨터의 기능 자체가 연장적 물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순 없다. 즉 반도체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지만 물질적인 것 없이 사유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.

▲ 맑스의 비물질노동개념

: 비물질노동개념정립에 가장 큰 참조가 된 사람은 맑스.

정치경제학비판 요강(1858)의 고정자본의 장에서 맑스는 예상되는 노동형태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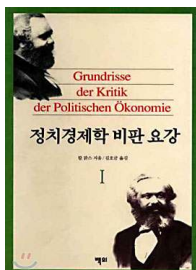
인간의 노동과 자연(대지)이 사회적 부를 생산하는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, 시간이 흐를수록 과학기술이 생산에 직접적으로 응용되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상함.

[맑스는 19세기 영국의 방직공장을 관찰하면서 노동형태의 변화를 추측한다.

그러나 사실 당시 영국의 방직공장이 1960년대의 한국 내 구로공단에 불과한 규모와 시스템이었음을 감안하면 맑스의 이러한 추측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알 수 있다.]

생산력으로 가동되어지는 과학기술(맑스는 이것을 ‘일반지성’이라고 정의한다.)

이 직접적인 노동을 대체할 것이며, 이것은 거대한 생산력으로 작동할 것이다.



맑스의 선구자적 통찰이 담겨 있는 『정치경제학비판』 요강(1, 2, 3)

▲ 노동개념의 재정립 : 개별적 노동 → 사회적 노동

: **일반지성**이 가장 거대한 생산력으로 행사될 시대의 노동이란 한 개인의 육체력속에 간직되어 있는 **개별노동**과는 **다른 유형**.

일련의 두뇌작업에서부터 몸 작업에 이르기까지 **네트워크화 된 노동**은 개별화 된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. 이것을 바로 **[사회적 노동]**이라 한다.

-새로운 유형의 노동주체

: 개별노동자는 네트워크화 된 사회적 노동의 **한 마디**로서 존재.

▲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

: 맑스는 「직접적 생산과정의 제 결과」라는 글을 통해 비물질적인 것에 관한 사유를 처음으로 발전시킴.

예술가의 노동결과물을 예로 들면서, 비물질적 노동의 전형적인 형태를 설명. 이것을 **비물질적생산노동**이라 이름 붙였다.

하지만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맑스가 당시의 일반적인 생산 형태였던 물질적 노동이라는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착취와 억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.

그리하여 **비물질적생산노동**은 맑스의 이론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.

그러나 과학기술이 3차 산업혁명으로서의 비역학적인, 정보적인 형태를 취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맑스가 제기했던 비물질적생산 이라고 하는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.

(2교시)

▲ 비물질노동의 두 가지 형태 : 정동적 노동 affective labor 과 지적 노동 intellctive labor

-affect 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

신경계가 발전될수록 그 복잡성에 의해서 감각과 행동 사이에는 등차를 가져오는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.

감각이 들어왔을 때 감각에 대한 해석작용. 즉 내부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정적인 움직임을 **affect** 라고 정의한다.

예> 교사의 수업노동, 의사의 치료노동, 여성의 가사노동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은 창조성을 함축함.

이러한 정동적 노동affective labor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지적 노동intellctive labor과 더불어 현대의 중요한 노동형태로 대두됨.

▲ 비물질노동과 삶의 관계

자본주의의 매커니즘

: 삶 → (자본기계) → 노동 → 이윤창출

※ 맑스 “왜 삶은 노동으로 전환되는가?”

→ 생산수단과 인간의 결합과정을 거치면, 인간의 삶은 노동이라는 형태로 전환됨.

그래서 과거에는 삶과 노동의 분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진행되었다.

▲ 탈근대사회의 삶과 노동의 통합화

비물질노동의 시대에는 삶의 다양한 영역(출산, 양육, 취미생활)이 노동과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남.

예> 출산 → 산부인과, 가사노동 → 세탁소 ...

근대사회의 자본주의에서는 삶과 노동의 분리가 진행되었지만, 탈근대사회의 경우 삶과 노동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임.

▲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은 진정한 통합인가?

삶과 노동의 통합은 1968년 혁명 당시에 이탈리아, 프랑스 등이 노동거부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한 목표였다.

그러나 역설적으로 부르주아적 과정 속에서 삶과 노동의 통합이 출현.

부르주아적 과정 속 삶과 노동의 통합화 현상의 특징

-직접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.

비물질적노동이 물질노동과 다를 바 없는 소외노동으로 나타남

포섭론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.

※ 참고자료

『제국』의 3부 (네그리 저)

『제국기계비판 제1장 포섭론 (조정환 저)